

전남 모든 초·중·고 다음주부터 전면 등교수업

822개 학교 20만3000명 원격수업·부분등교 15개월만에 일상 회복
코로나19 상황관리 자신감 ... 광주는 2학기부터 전면등교 시행 계획

전남 지역 전체 학교가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가는 등 일상회복에 나선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822개 초·중·고 전체 학교 20만3000명의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받는다.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휴교에 들어간 뒤 원격수업과 부분등교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이다.

전남 지역은 이날 현재 전체 학교의 88% (725개교)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나머지 학교(97개교)도 전면등교에 나선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장 교육감은 "아직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남 지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0.06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3월1일-6월2일 현재 전체 학생·교직원 24만명 대비 확진수와 비율은 61명, 0.02%로 이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내 감염자는 3명에 불과하다.

보건교사와 특수교육교사들은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유치원교사·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은 7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7월 중 고3 학생, 고3 교사 등 1만9000명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은 이날 현재 전체 학교의 88% (725개교)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나머지 학교(97개교)도 전면등교에 나선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장 교육감은 "아직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남 지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0.06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3월1일-6월2일 현재 전체 학생·교직원 24만명 대비 확진수와 비율은 61명, 0.02%로 이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내 감염자는 3명에 불과하다.

보건교사와 특수교육교사들은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유치원교사·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은 7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7월 중 고3 학생, 고3 교사 등 1만9000명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은 이날 현재 전체 학교의 88% (725개교)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나머지 학교(97개교)도 전면등교에 나선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장 교육감은 "아직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남 지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학생 전면등교 확대에 관련해 공동 e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학생 전면등교 확대에 관련해 공동 e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때 즉각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동시, 명부 준비 등 교직원 비상대비 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다.또, 시·군 지역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다수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 초래된 경우 도 교육청, 시·군 보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사운영 방식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제학교 전면등교를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예타, 국가 균형발전에 방점 뒀야”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 68명 청와대 간담회
LH 개혁·청년 일자리 정책 건의 쏟아져 ... 정국 현안에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국 현안에 대한 쏠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요청해 만들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81명의 초선 가운데 68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LH)의 과감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군 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특히,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대형 국책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기존의 ‘비용 대비 편익’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두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호남과 영남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초선 의원들의 제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은 혁신 DNA가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며 “좋은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정관계를 비롯, 여권 내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론에서 분출된 쇄신론의 중심에 섰던 초선들이지만 정작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목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국민권익위, 청렴·시민권익 증진 업무협약

전현희 위원장 “공직 청렴성 개선”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 사회 구현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는 협약으로, 이번이 14 번째다.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인터뷰 3면>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도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 민원 해결,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잔여백신 지침 ‘오락가락’ ... 혼선 가중 ▶2면

복스 - ‘동물 인문학’·‘지속 관광’ ▶14·15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KIA 홍상삼 “마운드 활력 내가 지킨다” ▶18면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렉스스피어 및 진국 베헤전, 아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피어: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